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 화력발전소 관련 대책 논의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 11일 정읍 지역 내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 시민 불안과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등 관련 부서들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시·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고, 국회와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의회 · 생활개선회,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와 생활개선회(회장 박정자)는 12일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김경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약 100여 만원을 기부했으며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고 봉에 포장하면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정도 함께 담았다.

익산시의회와 생활개선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담긴 김치 500포기는 관내 복지시설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김제 죽산면 주민들, 백미 500kg으로 따뜻한마음 전달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김형국, 이종권, 김병태, 김은현)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50포(1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주민들은 매년 꾸준히 이웃들에게 백미를 기탁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형국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인식 죽산면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 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성료

귀농귀촌인 · 지역민 간 소통 강화의 자리 마련... 상호 교류 확대 기대

남원시는 11월 12일, 주천면 지리산 일번지 행복나눔터에서 ‘2025 남원시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관내 지역민 등이 함께 참석해 화합과 교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정착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화합 한마당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25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 이웃사랑 실천

쌀쌀해진 날씨 속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한 300여 명의 따뜻한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정읍시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5년 김치문화 사랑운동’을 열고, 2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부인 정종순 여사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찬성), 새마을문고(회장 김영현), 새마을청바지청년연대(회장 송화수) 등 새마을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이웃사랑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은 3일의 행사 기간 동안 배추 절이기부터 채소 손질, 양념 버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 순수 참여하며 2500포기의 김장김치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

이날 담긴 김치는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경연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도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며 “매년 구



준히 사랑의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읍시새마을회는 매년 김장 나눔뿐 아니라 말반찬 지원, 고추장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공동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 돌봄행정 강화

남원시 산동면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는 홀몸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안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AI를 활용한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스마트돌봄플러그 사업 연계와 같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현장 친화적인 돌봄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환경과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전열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겨울철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 예방 위해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막바지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산동면을 만들어 나가며,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해평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지정

고창소방서는 지난 11일, 성내면 해평마을에서 ‘제38호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행사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등 약 25명이 참여했다. 소방서는 해평마을 1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하고 설치 상태를 점검했으며,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과 초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화재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봉사활동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와 복지가동대(대장 유종환)가 11월 특화사업으로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봉사활동을 추진, 거동불편 어르신 60세대를 방문해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며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됐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가동대는 백구의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백구면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